

구조장비·인력 턱없이 부족 '위험한 물놀이'

■ 해수욕장 일제 개장... 전남지역은 안전한가

수상안전요원은 400m 떨어진 곳서 감시

구조보트 등 응급 상황 신속 대처 시스템 절실

지난 12일 오후 3시10분께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송호해수욕장에서 10세 미만의 어린이 15명이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파도가 치면서 순식간에 물 높이가 어린이들의 가슴(수심 80cm~1m)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구명조끼를 입은 어린이들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어린 피서객들은 파도(파고 1~2m)의 위력에 물속에서 넘어졌다 쓰다듬 반복했다. 한 어린이는 파도에 밀려 넘어지면서 물을 먹었는지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해상엔 수상안전요원을 태운 고무보트는 보이지 않았고, 이를 제지하는 수상안전 요원도 없었다. 다만, 수상안전요원은 물놀이 장소에서 400m 떨어진 감시탑에 앉아 이 광경을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다. 만약 위급상황이 발생했다면 안전요원들이 400m라는 거리를 뛰어와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해 보였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2시30분께 영광군 흥농을 계마리 가마미 해수욕장에서 해양경찰 소속 수상안전요원 2명이 순찰을 하고 있었다. 해변에선 50~60명의 피서객

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수상안전요원들의 손엔 필수 장비인 구조장비가 보이지 않았다. 호루라기와 무전기만 전부였다. 이들은 해상응급상황 발생시 무전을 통해 연락을 취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해상엔 인명구조용 보트와 안전요원은 보이지 않았다.

해수욕장엔 사륜 오토바이(1대)·수상오토바이(1대)·구급차(1대)가 구조·구급 장비의 전부였다. 또 길이 1km·너비 200m의 비교적 넓은 해변엔 목포해양경찰 소속 직원 2명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불감증이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개장한 도내 해수욕장 내 안전불감증은 여전했다.

전남도는 지난 18일 현재까지 61곳의 해수욕장을 개장한 뒤 기초자치단체 직원·소방서·육상경찰·해양경찰·안전요원

등 564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또 사륜 오토바이(10대)·수상 오토바이(15대)·구조선(23대)·구급차(4대) 등 52대와 자동제세동기·고속제트보트·수중영상 탐지장치·구명조끼 등 163개의 구급장비를 현장에 보냈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문제는 전남도가 해수욕장의 특성과 방문객 추이 등을 감안해 각종 구조·구급 장비 등을 배치했지만 각종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또 무사안일주의식 업무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수욕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들에 대한 교육도 수시로 해야 한다는 개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기용 수습기자 pboxer@kwangju.co.kr



조개줍는 안전요원 지난 5일 전남 영광군 흥농을 계마리의 가마미해수욕장에서 순찰을 돌던 해양경찰이 바다를 들고 갯벌을 파며 시간을 때우고 있다. /박기용 수습기자 pboxer@kwangju.co.kr

고3 여학생 아파트서 투신 자살

헤어진 생모 만나 고민해온 듯

21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모아파트 화단에서 이 아파트 10층에 살고 있던 여고생 A(18)양이 쓰러져 숨져있는 것을 경비원(77)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고교 3학년에서 재학 중인 A양은 자신의 방에 남긴 자필 유서를 통해 "충동적인 게 아니라, 여러번 고민했어. 그동안 모두 고맙게 지내"라고 남겼다. 학교나 부모,

친구를 원망하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A양의 아버지(44)는 경찰에서 "딸 아이가 5살때 헤어진 생모를 최근 만났는데, 힘들게 사는 생모 모습을 보고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양이 가정사 문제로 고민하다가 10층 집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교육 성행 지역 입시학원 집중 점검

교육부, 광주 서부 등 한달간

교육부는 21일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의 주요 입시·보습학원을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이날부터 한 달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은 서울의 대치동, 목동, 중계동, 강동,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광주 서부, 대전 서부, 경기 수원, 용인, 분당, 일산, 경남 창원 등 학원 집중관리 구역이다.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교습형

위 등 학원 관계법령 준수 여부뿐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 선행학습 유도 광고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조장하는 행위도 살펴본다.

교육부는 경찰청, 국세청,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과 공조해 학원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또 학원장 연수, 학원연합회 임원진 간담회 등을 통해 사교육 기관도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책무를 다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4 몰림 01:39
해질 19:44 몰짐 15:50

불볕 더위 조심하세요!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한 때 구름 많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많음	23/33	보성	구름많음	21/31
목포	구름많음	23/30	순천	구름많음	23/32
여수	구름많음	23/29	영광	구름많음	22/31
나주	구름많음	22/32	진도	맑음	22/30
완도	맑음	22/31	전주	구름많음	23/31
구례	맑음	22/33	군산	구름많음	22/30
강진	맑음	22/31	남원	구름많음	22/31
해남	맑음	22/31	축산도	구름많음	22/28
장성	구름많음	22/31			

◇바다 날씨

시해	남부	오전		오후	
		방향	파고(m)	방향	파고(m)
서해	안바다	남~남서	0.5	남~남서	0.5
남해	안바다	남~남서	0.5~1.5	남~남서	0.5~1.5
서부	안바다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10:13	03:45	23:24	15:57
여수	05:38	11:45	18:35	00:00

◇주간 날씨

23(수)	24(목)	25(금)	26(토)	27(일)	28(월)	29(화)
☀	☁	☁	☁	☀	☀	☀
23/33	24/29	23/27	23/27	24/29	25/32	25/32



◇생활지수

식중독	57
운동	40
빨래	70

'형평성 논란' 광주 삼육중

2018년까지 재정지원 중단한다

시교육청, 3년 내 전액 감액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삼육중학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의 재정 지원이 중단된다.

광주시교육청은 21일 '각종학교'로 분류되는 학교법인 삼육학원 소속 호남 삼육중학교(중학교 과정)에 대한 재정결합보조금 지원을 2016학년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의 경우 모집전형요강이 이미 배포된 것을 감안해 교직원 인건비와 표준 운영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 2016학년도에는 3분의 1을, 2017학년도에는 3분의 2를, 2018학년도에는 전액 감액한다.

이는 지난 201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부가 '각종학교'를 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호남삼육중은 수업 연한·입학 자격·교육 과정 등이 일반 사립중학교보다 비교적 자유로운 '각종학교'다.

특히,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학생을 자체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학교는 과거 종교인 자녀들이 주로 다녔지만 최근 영아불입 수업 등으로 주목받으면서 성적이 우수한 초등생들이 몰려 사실상 '특목중'과 같다'는 시선을 받아왔다.

광주시교육청도 이를 의식해 재정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학부모가 입학금·수업료 등을 전액 부담하는 사립초등학교·자율형사립고 등과의 형평성 시비 우려도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삼육중은 학생 선발권을 교육청에 이관하던지, 사립초·자사고와 같이 입학금·수업료를 학부모들로부터 받아 운영해야 한다.

삼육중은 현재 12개 학급 478명이 재학 중이며, 졸업하면 학력이 인정된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직원 인건비와 표준운영비로 지난해 16억6300여만원, 올해 16억9500여만원을 삼육중에 지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Advanced Partner

보청기 사업부 인증 프리미엄 전문점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OPEN 특가 이벤트!

상담만 받아도 배터리 1팩 제공

최신 청력평가 장비 도입

청각학 석사 전문가 무료 상담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미래로메디스(유) 보청기사업부)

문의전화 062)376-1010

여성가족부 인정

2014년도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 2014년 8월 중 개강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향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양(재)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양(재)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 강 료 : 24만원
-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 : 광신교육원(가복)
- ※ 수강료를 환불받으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하며, 2회 이상 수강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특전 및 혜택
-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별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 카드를 발급합니다.(출석시간 90% 미만자는 재적처리함.)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 제출서류

- ① 신청서(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③ 신분증 사본
- ④ 사진 2매
-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교학처 (062)605-1112, 1063